

# 지혜의 말씀

불기 2564년 1월 / 통권 467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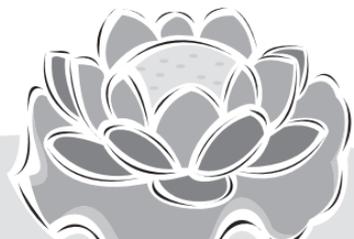
## 證道歌 (증도가)

제 불 법 신 입 아 성  
諸佛法身入我性이니  
아 성 환 공 여 래 합  
我性還共如來合이라

모든 깨달은 사람의 법신이 나의 본성에 들어오니  
나의 본성은 도리어 여래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일 지 구 족 일 체 지  
一地具足一切地이니  
비 색 비 심 비 행 업  
非色非心非行業이라.

하나의 지위가 모든 지위를 다 갖추고 있으니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행업도 아니다.



## 목 차

### 시와 불교의 만남 · 2

### 생각의 터 · 4

좋은 세상 / 윤성스님

### 불교상식 · 7

부처님의 생애

### 부처님의 말씀 · 11

### 알림마당 · 13

대광사 1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대광유치원 1월 행사계획

어린이법회 1월 활동

입춘·농삼재 소멸기도 안내

경자년 삼보사찰 성지순례 안내

제19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표지그림/원성스님

####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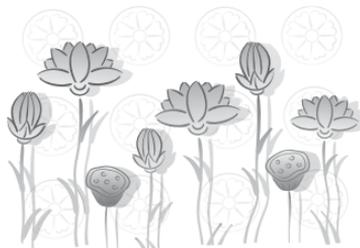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http://www.daegwangsa.or.kr)

####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 주 간 / 이숙경

####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 좋은 세상

윤성스님 / 대광사 회주

어느 날 아란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께서 계시는 세상은 불국정토라 하는데 어찌하여 지금 이 세상은 부처님께서 계시는데 생노병사가 만연하고 전쟁과 질병이 창궐하는 세상이 이어집니까? ”

세존께서 아란에게 이르시었다.

“네가 부처가 사는 정토세상을 꼭 보고 싶으냐? ”

“네 꼭 보고 싶습니다.”

세존께서 잠고 계시던 주장자로 땅을 한 번 힘껏 두드리자 부처님 계시는 주변이 보기에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변했다.

부처님은 우리와 같은 사바세계를 살고 계시지만 누리시는 정도가 우리와 전혀 달랐다. 중생들은 업보에 눈이 가려져 이를 보지 못했을 뿐이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지은 바 복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죽음의 공포가 전국토를 휩쓸고, 굶주림이 전 국민을 움아매던 인류 최악의 전쟁 육이오 중에도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역사 이래 가장 잘 사는 시대라는 지금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있다.

그 혼란과 고통의 전쟁 통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전쟁 부산물을 굶어모아 재빨리 돈을 만드는 잇속 밝은이들도 있었다. 조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든다.

복은 선행을 쌓고 덕을 베푸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선행은 남을 돕고 남에게 도움 주는 것을 말한다. 악행은 남을 괴롭히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말한다. 행복한 내일을 기약하려면 반드시 오늘을 선행으로 살아야 한다.

부처님은 수없이 많은 생을 덕과 선을 쌓으며 지내셨다.

“나만큼 선행 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셨다.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의 고통이 나를 얹어 댈 수 없으며 극락에 가더라도 다시 더 좋아질 것도 없다.” 고도 하셨다.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운용하는 사람이 악인이면 그 법이 사악한 악법으로 이용된다. 반대로 아무리 법이 미비하더라도 운용하는 사람이 잘하면 선법으로 활용 된다. 법이 완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완전해야 하며 세상이 완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완전해야 한다.

결국 극락과 지옥은 극락 지옥이라는 조건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만들거나 극락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면 안 된다.』를 시비하며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서로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정치권이 두 갈래로 갈려져 하염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도 정치인들에게 휩쓸려 두 갈래로 갈라져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있다.

국가를 경영한다는 정치인들이 국가는 없고 자신의 영달과 당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으니 어떤 법인들 온전하게 집행되랴? 저런 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속담에 ‘벼슬 못할 놈을 벼슬아치 만들어 놓으니 관이 절로 벌어진다.’는 말이 있다. 어디에 있더라도 제 지은 바 업은 피할 수 없어서 환경이나 조건을 능이 이겨낸다는 것이다.

붓다의 중요 가르치심이 ‘지은 대로 받는다(受業受生)’에 있음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은대로 받음’이란 어떤 세상에서도 자신이 만든 업은 절대 피할 수 없음을 말한다. 저마다의 노력이 저마다의 업이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어 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죄 많은 사람은 극락에 데려다 놓아도 극락이 지옥으로 변해 된다.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즈음 내 아침 기도는 제발 나라와 백성이 서로 헐뜯고 질투하는 반목에서 벗어나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위하는 극락심이 일어나게 되기를 비는 것이다.

새해에는 모두가 그렇게 미운 이를 오히려 보듬고 시기심을 오히려 선심을 짙는 공부심으로 여기고 생각이 다름을 오히려 마음 공부하는 기회로 여겨서 지옥심을 버리고 극락심을 닦는 전화위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합장한다.



## 부처님의 말씀

### 3) 삼법인

존재의 실상, 법의 참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삼법인(三法印)이다. 삼법인은 ‘세가지 진실한 가르침’이란 뜻으로, ‘도장인(印)’자를 쓴 것은 도장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찍히듯이 이 3가지 가르침도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으며 똑같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삼법인은 불교의 핵심을 보여주는 인감도장인 셈이다.

삼법인은 사법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초기불교시대에는 삼법인으로, 대승불교시대에는 사법인으로 정형화되었다.

사법인은 모든것이 변하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변하는 것에는 자아(自我)라는 실체가 없다는 제법무아(諸法無我), 모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을 낳는다는 일체개고(一切皆苦), 모든 괴로움을 없앤 열반적정(涅槃寂靜)을 말한다. 삼법인일 겨우 열반적정이나 일체개고 중 어느 하나가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제행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 혹은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을 삼법인이라 일컫는 것이다.

첫째, 제행무상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제행(諸行)이란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 만들어진 모든 존재를 일컫는다. 여기에 부처님 법이나, 진리, 허공은 해당되진 않는다. 무상(無常)이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제행무상이란 이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됨이 없이 항상 변한다는 의미이다.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있다. 그때의 무상은 ‘허무’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제행무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행무상은 모든 존재가 한 순간도 쉽없이 매찰나마다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생각한다. 항상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것처럼 자랑스럽게 거닐기도 한다. 권세와 명예, 재산도 영원할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주위의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이나 권력가나 재벌가의 몰락을 지켜본 사람, 한 세대 아름다움의 우상이었던 유명배우의 늙은 모습을 본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렇게 사람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겪는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생(生:생겨나) 주(主:머물다) 이(異:변화하여) 멸(滅:소멸함)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사시사철처럼 계절이 변하고 강산도 변한다.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견고한 물체도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 우주 역시 성(成:이루어져) 주(主:머물다) 괴(壞:흩어져) 공(空)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상하게 흘러가기에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집착하여 고정화 시키는 순간, 변화될 수밖에 없기에 갈등이 일고 고통이 발생한다.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평범한 진리 앞에서 겸허하게 마음을 비워야 옳다. 그리고 차분히 모든 사물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이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잘못된 생각이 바로 전도몽상(轉倒夢想)이다.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할 것으로 믿은 잘못된 생각을 버릴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바르게 사는 길을 알게 된다.

둘째, 제법무아는 무슨 의미인가? 제법(諸法)이란 모든 사물이나 존재를 일컫는다. 무아(無我)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생겨나고 사라진다. 나 자신도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 다르다. 나의 연속적인 행위만 있지 고정된 나의 실체는 없다는 뜻이다.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생겨나고 사라진다. 나 자신도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 다르다. 나의 연속적인 행위만 있지 고정된 나의 실체는 없다. 촛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새로운 불길이 일어나고 있을 따름이다. 변함없는 나의 본래 모습을 구석구석 살펴본들 어디서도 나의 실체를 찾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란 조건에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연 따라 생긴 것은 인연이 다 하면 흩어지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실체란 없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기중심적 사고와 아집이 소유욕을 없애면 인연으로 형성된 존재의 실상을 깨칠수 있다. 모든 사람과 사물이 어우러져 더불어 사는 세계를 이해하고 피부 깊숙이 느끼게 되면 인류의 화합과 평화가 앞당겨질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왜 일체개고인가? 세상사는 희로애락이 다 있어 괴로움만 있는것이 아닌데, 왜 모든 것을 고통이라고 하는가? 물론 살다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세상사의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이다. 영원하지가 않다. 그리고 나의 기쁨과 행복은 상대방의 슬픔과 불행이 연결되어 나타난다. 생의 이러한 이율배반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무엇보다도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덧없고 부질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괴롭다.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에 괴롭다. 더 괴로운 것은 그렇게 무상한 것을 모르고 욕망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다.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다.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 라고 생각해서 집착하지만,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에 인간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한숨짓는다.

모든 것은 변하므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기쁨과 즐거움



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중생은 언제나 자기중심의 습성에 길들어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지속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그러 수는 없다. 진시황이 죽지 않는 약이라는 불로초(不老草)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진시황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영웅호걸부터 미천한 신분의 사람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항상 풍족하고 즐겁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일은 없는 법이다.

제가 괴로움이라고 설파하신 것이다. 그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욕망의 불을 끄고 이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다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은 평안을 구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열반적정을 살펴보자. 열반(涅槃)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nirvana), 팔리어 니빠나(nibbana)에서 온 말이다. 니르바나라는 불을 흑 불어 끈 상태를 의미한다. 그것은 번뇌와 갈애의 불꽃이 꺼진 상태요, 고통이 사라져 고요한 적정(寂靜)의 상태이다.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난 한없는 평화로움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경지로서 해탈(解脫)이다.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모르고 집착하면 괴로움이요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알고 놓으면 열반이요 해탈이다. 따라서 불자들은 사범인의 가르침을 자신의 생활에 구현하여, 최상의 평화와 대자유인 열반을 향해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번뇌에 집착하지 않고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 부처님의 말씀



##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 제2품 작은 법문의 품

## 14. 담미가의 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 싸왓띠의 제따와나에 있는 아나타뻘디까 승원에 계셨다.
2. 그때 담미가라는 재가의 신자가 오백 명의 신도들과 함께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 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아 재가의 신자 담미가는 시로써 부처님께 여쭙었다.
3. [담미가] “광대한 지혜를 갖춘 님 고따마여, 당신께 묻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은 출가하는 것과 재가자로 있는 것과 어느 쪽이 좋은 것입니까?”
4. 참으로 당신께서는 신들을 포함한 이 세계의 운명과 그 궁극을 알고 계십니다. 미묘한 의미를 보는 님으로 견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최상의 깨달은 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5. 당신께서는 모든 앎을 이해하시고, 못 삶들을 애민히 여겨,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널리 보는 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덮개를 벗어 버리고, 티끌없이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6. 에라바나라고 부르는 코끼리 왕은 당신이 승리자임을 듣고 당신께로 왔었습니다. 그도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는 ‘훌륭하다.’라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7. 비사문천왕 꾸베라도 가르침에 대해 여쭙고자 당신께 왔었습니다. 현명한 님이시여, 그가 여쭙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또한 당신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8. 사명의도이건 자이나교도이건 논쟁을 일삼는 어떤 이교도일지라도, 지혜에 관한 한, 마치 서 있는 자가 달리는 사람을 넘지 못하듯, 모두 당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9. 논쟁을 일삼는 어떠한 바라문이라도, 어떤 바라문들은 나이가 많을 지라도, 혹은 논객이라고 자부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들 해결을 얻고자 당신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0.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잘 설해주신 가르침은 미묘하고 또한 안락을 줍니다. 모두 당신에게 간절히 듣고자 원하오니, 청컨대 설해주십시오, 위없는 깨달은 님이시여.
11. 모든 수행승들과 재가 신도들이 듣고자 원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신들이 잘 설해진 제석천의 말을 듣듯이, 티끌 없는 님께 깨달음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12. [부처님] “수행승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대들에게 번뇌 없애는 가르침을 말하겠노라. 모두 잘 새겨라. 유익함을 보는 슬기로운 이라면, 출가한 사람에게 적합한 행동양식을 배워 행하라.
13. 수행승은 때가 아닌 때에 돌아다니지 말아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탁발을 하러 마을에 가라. 때 아닌 때에 다니면 집착에 얽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달은 님들은 때 아닌 때에 다니지 않는다.



## ◎ 대광사 1월 법회 및 행사 ◎

- ◇ 1월 2일 성도재일·약사재일  
자비도량참법기도 입재 (10일간 기도)
  - ◇ 1월 9일 음력12월 보름법회 (오전10시 30분 설법전)
  - ◇ 1월 11일 자비도량 참법기도 회향
  - ◇ 1월 12일 지장재일
  - ◇ 1월 18일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저녁예불)
  - ◇ 1월 19일 불대18기 졸업식 (오전 10시 설법전)
  - ◇ 1월 25일 설날합동차례 (오전 7시 설법전)
  - ◇ 1월 27일 정초기도입재 (오전 10시 설법전)
  - ◇ 1월 31일 정초기도 회향 (오전 10시 설법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입춘·늘삼재 소멸기도

- 일시 : 입재 2월 2일 / 회향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늘삼재 : 뱀띠.닭띠.소띠 (늘삼재 부적 나눠줍니다)
- 입춘 동참금 : 3만원 / 삼재소멸기도 1인당 2만원  
(삼재가 드신분은 입춘기도 같이 해주십시오)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 545-9595



# 고맙습니다

## 대광후원회

(11.16 ~ 12.19)

이동 이연숙 350,000	박외순 20,000	이미정 50,000	강 란 10,000
정진이 20,000	변동일 10,000	홍예현 50,000	유미란 50,000
홍승운 20,000	원광환의원 100,000	이상명 30,000	후원회 100,000
김경남 20,000	김병문 20,000	이경화 10,000	서경스님 150,000
황두관 20,000	박미애 10,000	찬불단 50,000	
(주)카텍 300,000	정대식 20,000	석동 중앙문구 50,000	
공상섭 30,000	김지현 100,000	박기상 20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후원

서경스님 50,000

### ♥ 동지기도 공양

무량화 200,000/ 김덕수 100,000/ 김종열 100,000/ 법계화 100,000  
 한지민 200,000/ 이용훈 100,000/ 이명숙 20,000/ 김성문 100,000  
 김민서 100,000/ 최경순·김선우 100,000/ 김원규 50,000/ 원지심 100,000  
 손상만 50,000/ 박종호 50,000/ 고봉주·고태우 100,000/ 박호영 300,000  
 정호철 100,000

### ♥ 초하루공양

황준영 300,000

### ♥ 송광사 선원대중공양

대광사 후원회 1,000,000  
 김인복 100,000  
 덕성심 50,000  
 호천장 50,000

### ♥ 2019년 어르신한마당(누락분)

권형엽 300,000  
 법륜 300,000



## 1월 대광유치원 행사계획

### 1. 대광유치원 개원

○ 일시 : 2020년 1월 10일(금)

### 2. 2020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020년 1월 11일(토)

○ 대상 : 신입생 및 학부모

### 3. 7세 졸업여행 및 템플스테이

○ 일시 : 2020년 1월17일(금) ~ 18일(토)

○ 장소 : 경주 불국사, 대광사 템플방사

## 1월 어린이법회 활동

### 1. 동련 경남지구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1월31일(금) 저녁 6시30분부터

○ 장소 : 창원 세코

○ 장소 : 동련 경남지구 사찰 스님 및 어린이법회지도교사

## 경자년 삼보사찰 성지순례

○ 일시 : 2월 5일(수) 오전7시 진해역 출발

○ 순례사찰 :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 동참금 : 1인당 5만원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 545-9595

# 佛紀 2564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19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신도기본교육 제19기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0년 3월 3일~3월 25일	2020. 3. 31(화)~12. 9(화)
수계일	2020년 3월 28일	(1년 과정 - 2학기제)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19년 8월 1일부터 ~ 2020년 2월 말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수련회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수련회비 포함)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 강의내용

의 식	예불 및 의식(찬불가)
예 절	사찰예절, 신도오계
교 리	부처님의 생애, 사성제, 팔경도 등
불 교 문 화	법당, 탑, 탱화, 벽화, 문학, 성지순례
신 행	참회와 기도, 사경 보시와 자비실천, 수련회
불 교 역 사	인도·중국·한국 불교사, 동남아 불교사
불 교 사 상	중관, 유식, 화엄, 선사상 등
경 전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등
특 강	사찰음식, 다도, 불교 사회복지 실천, 수련회, 성지순례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